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과 군 생활부적응 간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양정남*, 최은정*, 박순희**, 형 민*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Family function medi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prior to entering the military and maladjustment in military life

Jeoung-Nam Yang*, Eun-Jeung Choi*, Sun-hee Park**, Min Hyung*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Dept. of Counseling Psychology, Dongshin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군 병사들의 가족기능과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이 군 생활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이러한 영향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적 역할을 파악하고자 함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군 복무중인 병사 3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구조방정식모형(structural equation model)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군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군 생활부적응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었으며, 특히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군 생활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은 가족기능을 통해서 군 생활부적응에 간접적 효과가 나타났고, 가족기능은 입대 전 인터넷중독수준이 군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 속에서 부분 매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입대 전에 인터넷중독 경향이 있고 가족기능 수준이 낮은 병사들을 위하여 군과 가족을 포함한 융복합적인 차원에서 군 생활적응 프로그램 및 전문적 개입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병사, 인터넷중독, 가족기능, 군 생활적응, 군 생활적응프로그램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ternet addiction and maladaptation among soldiers and to ascertain how family function mediated among army soldiers. A questionnaire survey was conducted with 313 soldiers currently serving military service and was analysed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Internet addiction had a direct effect on military adjustment and family function mediated military adjustment. Moreover, internet addiction had an indirect effect through family function, family function had a partial mediate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addiction and military adjustment among army soldiers. Based on the findings, this study discussed the need to develop preventive and therapeutic programs to enhance army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Key Words : Soldiers, Internet addiction, Family function, Military adjustment, Military adjustment program

Received 9 August 2016, Revised 19 October 2016
Accepted 20 November 2016, Published 28 Nov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Eun-Jeung Choi
(Dept. of Social Welfare, Dongshin University)
Email: ejchoi3781@dsu.ac.kr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병역의무를 갖고 태어나며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병역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군에 입대하는 병사들은 대부분 후기 청소년기에 속하는 연령인 19-24세이며 스트레스에 대한 효율적 대처가 아직은 미숙한 단계이다[1]. 따라서 군 생활에서 개인의 욕구와 군의 조직통제로 인한 부조화로 불안이나 갈등과 같은 다양한 부적응문제와 이탈행동을 일으킬 수 있다. 2013년 군기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80명에 이르렀고 최근 10년간 매년 평균 79.8명이 사망하였으며 이중 폭행과 자살 사고가 68.4%를 차지하고 있다[2].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군복무 부적응 실태조사에 따르면, 병사들 10명 중 1명 이상이 편집증, 적대감, 신체화, 대인민감성 등과 같은 부적응 증상을 보였으며[3], 2007년 안현희 등의 연구에서도 병사들의 약 11%가 간이정신진단검사(SCL-90R)에서 부적응을 나타냈다[4]. 병사들의 이러한 부적응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사회적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동안 진행된 군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집중된 편이었다. 이들을 분류해 보면, 첫째, 심리적 영향요인으로 소외감[5], 외부사회와의 단절[6], 스트레스[7,8,9,10,11], 자아존중감[12] 등이 있다. 둘째, 인간관계 영향요인으로 선임병과의 갈등요인[12], 상급자의 억압, 하급자와의 원만치 못한 관계형성의[6,13,14] 어려움이 병사의 병역생활 적응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파악할 수 있다[15] 그밖에 군 생활부적응의 원인을 가족 내의 변화, 인터넷의 보급이나 극심한 취업난 등으로 보는 입장도 있고[8], 자기통제력 및 우울과의 연관성이 제시되기도 한다[16].

최근에는 군 부적응 관련 변인으로 다양한 사회 환경적 변수들과 함께 가족기능이나 인터넷중독과 같은 새로운 정신건강 문제들이 주목받고 있다. 특히 근래 주목받는 행위중독인 인터넷중독 문제를 다룬 한인영 등[17]의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인 군 병사 중 인터넷중독성향군이 10.7%로, 입대 전 인터넷중독 경험 수준과 주관적 외로움, 자기통제력이 병역생활 적응 수준에 대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도출하였다.

한편 군 부적응과 가족 요인들의 관련성은 이미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병사들의 자기분화와 가족투

사 및 가족단절이 군복무 부적응과의 관련성이 나타났다[18]. 병사들은 계급이 높을수록, 자신의 건강과 가정 형편이 좋을수록, 진로가 희망적일수록 병역생활 적응이 수월하다고 응답하였고[19], 가족응집력도 더 높은 차원에 속할수록 인터넷중독은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20]. 가족 기능과 관련된 변인들은 개인의 자기통제력에 영향을 주며[21], 자기통제력은 인터넷사용에 긴밀한 관련성을 가진 중요 요인이기도 하다[22].

이처럼 병사들의 군생활 부적응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추정되고 있는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에 자기통제력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자기통제력은 가족 기능과 상호연관성이 깊음을 알 수 있다[23,24]. 지금까지 진행된 군생활 부적응을 다룬 선행연구들은 인터넷중독과 가족 관련 요인을 각기 별도의 선행요인으로 다루는 경향이 많았으며, 특히, 가족기능의 매개적 역할보다는 선행 요인으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두는 편이었고, 군 병사 부적응의 원인 요인을 밝히고자 하는 단선적 인과론에 치중해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인터넷중독과 관련된 군생활부적응에 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적응이란, 개인이 사회적, 환경적 요구와의 조화를 이룬 상태를 의미함과 동시에 변화하는 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이며, 자신의 여러 가지 욕구를 실현시키기 위해 환경을 최대한 활용하고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개인과 환경간의 역동적 과정이라고 정의하였다[25,26,27,28,29]. 한편 군 생활적응은 병사가 자신의 병역의무에 대해 가지는 태도로서, 군의 조직문화를 수용하고 흡수되는 과정이고[19], 군 조직에서 개인의 기대감 및 욕구가 어느 정도는 충족되고 있는 상태로 본다[30].

한편, 군 생활 부적응은 군 조직 환경과 개인의 욕구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적응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군의 가치나 규범이 개인의 생각이나 삶과 다르다고 해서 수용하기 힘들어하고, 군의 요구나 명령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여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맡은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군 생활 부적응이라고 한다[31].

지금까지 군 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군 생활 부적응의 정의와 개념에 초점을 둔 연구들이[7,19,32,33,34]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으로는 부적응 증후와 증상에 관한 연구들이 많았는데,

군생활 부적응 병사들은 대인기피, 강박관념 및 강박행동, 불안, 우울 등의 증상을 나타냈으며[35], 질병군을 분류해보면 신경증 27.7%, 성격장애 25.8%, 정신증 18.7%, 등으로 나타났다[17].

군복무부적합자로 판정받은 병사들의 정신장애증상에는 신체화 및 신경증적 장애, 정서적으로는 불안, 우울, 분노, 적개심, 공격성 성향[36] 등이 있다. 구승신[19]은 군 생활 부적응의 대표적 증상인 자기통제력 부족으로 인한 폭행, 강력사고나 군기사고 같은 심각한 결과가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군복무 부적응의 증상과 질병을 분류하고 부적응의 결과를 제시하는 연구들로, 군 생활 부적응을 초래하는 다양한 선행요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편 군 생활부적응에 인터넷중독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임을 밝히는 연구들이 소수 진행되고 있다. 현대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많은 편의와 혜택을 누리고는 있지만, 그로 인한 새로운 부작용과 문제들이 점차 심화되고 있으며, 사회적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중독은 도박중독과 더불어서 대표적인 행위중독으로서, 마약중독 및 알코올중독과 같은 물질중독과 마찬가지로 심리적 장애, 대인관계, 사회적 장애 등을 유발한다는[20] 일반적 인식이 지배적이지만, 인터넷중독의 구체적 진단기준과 또는 하위 요인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37,38]. 이에 미국정신의학회(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13; 이하 APA)는 인터넷게임중독을 진단할 수 있는 9개의 진단기준¹⁾을 2013년판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편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이하 DSM) 5판(DSM-5)[39]에 제시하고는 있으나, 인터넷게임 중독을 DSM-5에 공식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았고 ‘Section-III’에 포함시켰다. 이는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임상 자료와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여 향후 발간되는 DSM-6에 정식 질환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사전 준비 과정이다[40]. 국내의 대표적 표준화 척도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인터넷게임중독척도’이다[41]. 이 척도는 인터넷중독 진단척도(K-척도)를 인터넷게임중독에 맞게 변형한 것인데, K-척도와 동일하게 인터넷게임으로 인한 ‘일상생활장애’, ‘내성과 통제력 상실’, ‘금단과 부정적 정서경험’, ‘가상세계 지향’라는 4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된 진단기준이다.

군 병사들의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적응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한인영 등은[17] 징병검사 시에 인터넷중독 스크리닝의 필요성과 더불어 심각한 인터넷중독자들은 입대 연기 또는 치료 후 입대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현재 군에서는 병사들의 자기계발을 목적으로 군대 내부에 인터넷을 설치하고 예방지침에 따라서 병사들이 인터넷을 이용한 정보습득이나 사이버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가동 중이기는 하나[42], 그런 시책의 실효성은 아직 확인하기 어렵다.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들을 살펴볼 때 우리사회의 인터넷 중독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특히 군생활 부적응과 인터넷중독의 관련성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진한 실정이다. 따라서 군 부적응 병사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군생활 부적응과 관련된 다양한 변인들을 찾아내고 이들과의 관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두번째로 가족기능과 군생활부적응과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 개인을 이해하고자 할 때 가족을 함께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이다. 특히 가족이 기능적인가 역기능적인가 하는 문제는 일생을 통해서 가족구성원들 각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43].

부정적 기분의 모면(mood modification): 무기력함/불안/죄책감 등의 부정적 감정을 회피, 완화하려고 인터넷게임을 함.

갈등(conflict): 인터넷게임 때문에 중요한 관계, 일자리, 교육/경력 상실할 위험에 처하게 하거나 상실하게 됨.

출처: APA. (201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5th ed.). Washington D.C.: Author. p. 795.

1) APS의 인터넷게임중독 진단기준 9가지

몰두(preoccupation): 인터넷게임에 몰두/전념을 의미함. 인터넷게임이 일상에서 가장 지배적 활동이 됨(behavioral salience). 금단 증상(withdrawal symptoms): 인터넷게임을 하지 못하면 불안/슬픔/짜증(irritability)등이 나타나고, 약리학적 금단 현상은 관련되지 않음.

내성(Tolerance): 이전과 같은 만족을 획득하기 위해 인터넷게임의 양을 증가시키려는 욕구를 의미함.

조절실패(재발, unsuccessful attempts): 게임량 축소나 게임 중단 등에서 거듭된 실패를 의미함.

관심 상실(Loss of interests): 이전에 즐기던 취미나 오락 등에 대해 관심이 상실됨을 의미함.

지속적인 과도한 이용(continued excessive use): 심리,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게임을 계속 함.

기만(Deception): 가족구성원, 치료상담사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게임이용량에 대해 거짓말을 함.

가족의 심리적, 사회적 건강에 대하여 연구했던 여러 학자들은 원활한 가족 과정과 성숙한 가족관계를 의미하는 가족기능성(family function)이란 개념을 중요하게 다루어왔다[44]. 가족의 기능성은 역기능적 가족과정과 기능적 가족과정을 판별함으로써 평가되는 개념으로, 가족 문제를 진단하고 치료하며 가족상담 및 치료분야에 많이 활용되어 왔다[45]. 가족기능의 하위요인으로는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있는데, 첫째로 가족응집성은 가족구성원들이 경험한 정서적 경계와 개인적 자율성의 정도로, 가족구성원들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밀착되어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지하는지를 의미한다[46]. 두 번째 가족적응성은 가족구성원 간의 권력구조, 관계규칙, 역할관계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서, 가족체계의 역동성을 설명한다[47]. Olson등[48]은 가족적응성이 경직 수준, 구조적 수준, 융통적 수준, 혼동 수준 중에서 융통적 수준인 경우에 건강한 가족관계가 촉진되며, 가족응집성도 극단적으로 밀착된 수준(총점 40-50점)보다는 연결된 수준(총점 33-39점)의 가족구성원들이 건강하다고 하였다[49]. 그러나, 이 척도를 보완한 전귀연의 연구[70]에서는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적응성과 가족응집성이 높다고 나타났다.

가족기능과 군생활 부적응이 직접 혹은 간접으로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2008~2009년까지 발생한 군 자살사고 156건에 대한 연구에서 자살의 군 외적인 요인으로는 가정환경이 21%(32건)로 가장 많았고, 군 내부 요인은 군 생활부적응 24%(38건)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10]. 이러한 연구결과는 군 생활에 부적응한 병사들에게 가족 요인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50].

한편 구용근[51]은 인터넷중독과 유사한 중독인 스마트폰 중독과 관련하여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은 자기통제력을 완전히 매개하여 스마트폰 중독에 영향을 준다고 밝힘으로써,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연구 결과들은 가족관계나 가족기능을 근거로 하여 형성된 자녀의 심리적 기능 혹은 능력들이 군 생활 적응에 중요한 작용을 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한다.

비교적 최근의 연구들은 군 병사들이 지각한 부모와의 대상관계와 군 생활 적응간에 정적 상관관계를 시사하고 있으며, 부모와 안정적 대상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나, 자기격려가 높은 병사일수록 군 생활 적응력이 높음

을 시사하고 있다[52]. 특히, 아버지의 양육태도가 병사들의 심리적 안정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심리적 안정성이 군 생활 적응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5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행연구들이 시사해주는 군 생활 부적응과 가족기능간의 관련성에 근거하여 가족기능이 군생활부적응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 설정하고자 한다.

세 번째로, 인터넷중독과 가족기능에 관한 논의를 자기통제이론을 근간으로 살펴보면, 개인들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자기통제력이 작동하고 가족기능을 자기통제력에 대한 주요 영향 요인이라고 한다[21]. 여러 연구자들은 가족기능과 인터넷중독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가족기능을 나타내주는 가족 의사소통이 인터넷중독의 선행요인인 동시에 결과 요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즉, 부모-자녀간의 의사소통이 역기능적일수록 자녀들의 인터넷중독 위험성이 증가하며[54], 개방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은 폐쇄적 의사소통을 하는 가족보다 인터넷중독 성향이 낮다고 주장하였다[55]. 또 부모의 불일치한 양육태도가 스마트폰 중독과도 관련성이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56].

이러한 연구결과들은 인터넷 사용시간이 많을수록 가족구성원들 간의 의사소통이 감소하고 사회 활동 참여정도가 줄어든다고 주장한 Kraut 등[57]의 연구결과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김진희와 김경신[58]의 연구에서 대학생의 가족기능이 인터넷중독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 가족기능이 심리적 기능을 통해 인터넷중독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가족기능과 인터넷중독이 상호작용하는 관계에서 인터넷 중독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연구를 살펴보면[59], 김교현[60]과 장재홍[61]의 연구에서도 인터넷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하는 청소년과 부모와의 관계는 원만하지 않았다. 박영희[62]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 성향이 높을수록 역기능적 의사소통 점수가 높았으며, 이영주[63]과 염영란[64]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중독군이 비중독군에 비해 가족 의사소통 수준이 더 낮았으며, 또한 병사들의 가정 소득수준에 따른 입대 전 인터넷중독 성향은 하위 소득계층에서 더 많은 병사들이 인터넷중독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65]. 군 병사 중 가족의 소득수준이 낮으면서 인터넷중독 성향이 높은 병사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66]. 또한 장갑수[67]는 부모-자녀 의사소통의 유형이

청소년 인터넷 게임중독에 가족기능이 매개한다고 주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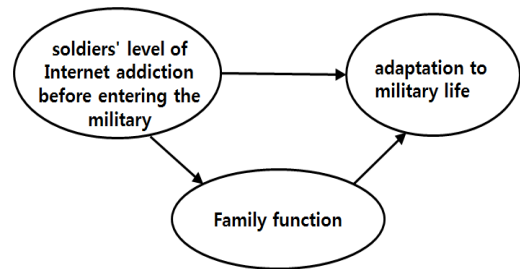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인터넷중독과 가족 관련 변인 및 적응이나 부적응을 동시에 다룬 연구들은 대개 청소년이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본 연구와 같이 군 병사를 대상으로 그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가족 기능 및 군생활 부적응을 다룬 연구는 거의 살펴보기 어렵고, 이들 세 변수를 구조모형으로 설계하여 영향관계를 파악하려는 시도는 매우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선행변수로 설정한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결과변수인 군 생활 부적응간의 인과적 관계와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병사들의 인터넷중독 문제에 대한 예방적, 치료적 개입과 가족기능 제고를 위한 전문적 개입을 정책화하는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병사들의 인터넷중독 문제를 사전에 선별하여 개입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가족기능이 원활하지 못한 병사의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과 군 생활적응프로그램을 위한 정책적·실천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르는 연구 문제는 아래와 같다.

- 연구문제 1.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 군 생활 부적응, 가족기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2. 병사들의 군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결과변수인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 연구문제 3. 병사들의 군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매개변수인 가족기능에 영향을 미치는가?

2. 연구 방법

2.1 연구모형 및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들이 입대 전 경험한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 생활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인터넷중독이 군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군 병사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을 선행변수로, 군 생활 부적응을 결과변수로, 가족기능을 매개변수로 하여 변수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고 매개효과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연구모형을 [Fig. 1]과 같이 설정하였다([Fig. 1] 참조).



[Fig. 1] Research Model

2.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군 생활 부적응 간의 영향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이므로, 현재 군에 복무 중인 병사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편의표집으로, 0000지역에 소재한 00사단 예하 부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에 00사단측의 승인을 거쳐 2015년 9월 1일부터 25일까지 설문지 350부를 병사들에게 배포하고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총 340부로 이중 훼손 및 무성의하게 답변한 경우를 제외하고 313부를 최종분석에 활용하였다.

2.3 측정 도구

본 연구에 사용한 척도는 병사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관한 문항들, 군생활 부적응, 가족기능,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을 측정하는 것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2.3.1 가족기능 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가족기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Olson[68]와 Laveel[69]가 개발한 가족 적응성 및 응집성 평가도구인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를 진귀연[70]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척도는 가족응집성(10문항), 가족적응성(10문항)이고, 총 20문항 5점 Likert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가족응집성은 총점기준으로 과잉분리 수준(10-25점), 분리 수준(26-32점), 연결 수준(33-39점), 밀착수준(40-50점)으로 구분해서 판단하며, 이중 '연결 수준'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한다. 가족적응성은 총점기준으로 경직 수준(10-20점), 구조적 수준(21-24점), 융통적 수준(25-29점), 혼동 수준(30-50)으로 구분하며, 융통적 수준

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전귀연[70]의 척도에서는 Family Adaptability and Cohesion Evaluation Scales III의 한계를 지적하고 ‘밀착수준’ 집단을 ‘매우 연결된’ 집단으로, ‘혼동수준’ 집단을 ‘매우 융통적인’ 집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연구의 결과에서도 가족응집성 수준이 ‘더 연결된’ 집단일수록, 가족적응성 수준이 ‘더 융통적인’ 집단일수록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귀연[70]의 척도를 사용하여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 수준을 판단한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93$ 이었다.

2.3.2 군 인터넷중독 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성향을 평가하기 위해 신웅섭 등[36]이 개발한 ‘군 병사용 인터넷중독 진단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를 인터넷 사용이 제한되는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문항을 과거형으로 변경하여 사용했다. 군 병사용 인터넷중독진단척도는 하위요인들의 내적일관성 신뢰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과거 인터넷중독 성향이 있는 병사의 현재 병영생활을 예측하게 해주는 근거자료가 될 수 있다[36]. 본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중독성향이 심각한 것으로 해석한다. 군 병사용 인터넷중독진단 척도의 신뢰도를 살펴보면, 신웅섭 등[36]의 연구에서 Cronbach $\alpha = .904$ 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본 연구에서도 Cronbach $\alpha = .938$ 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3.3 군생활적응척도

본 연구에서는 병사들의 군 생활부적응을 파악하기 위하여 군복부적합도검사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이 검사는 군의 신 인정검사에 포함된 것이며, 징병 및 입영단계에서 복무 부적합자와 복무 중 사고 및 부적응 예측자를 조기 선별하기 위해서 개발된 검사이다[71]. 이 검사는 반응왜곡척도, 정신병리척도, 내용척도, 특수척도, 사고관련척도 등을 포함하여 총 18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는 내용척도 중에서 행동통제에 관한 9문항이다. 각 문항은 ‘예(1점)’, ‘아니오(2점)’의 2점 척도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군생활 적응을 잘하는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신뢰도는 Cronbach $\alpha = .67$ 이다.

2.3.4 인구사회학적 변인

인구사회학적 문항은 문헌고찰을 통해 학력, 계급, 연령, 복무기간으로 구성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군 병사의 인터넷중독 수준이 가족기능을 매개로 군 생활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고 분석하였다. 연구모형은 SPSS 21.0 프로그램과 AMOS 21.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빈도와 평균값 산출, 각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확인적 요인분석 통한 타당도 확인, 측정모형의 적합도 확인,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고 직·간접효과 및 총 효과를 살펴보았다. 모형의 적합도는 카이제곱 통계량 χ^2 와 GFI, RMSEA를 통해 절대적합도를 평가하고, TLI와 CFI를 통해 상대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또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증은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연구결과

4.1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들의 학력은 전문대 및 4년제 재학 중인 사람이 69.4%로 가장 많고 고졸이하 27.4%, 전문대 및 4년제 졸업 2.6%, 석사과정 이상 0.6%로 나타났다. 계급은 이등병 14.1%, 일등병 43.4%, 상병 31.2%, 병장 14.1%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division	frequency	%, Average
Education	High school or less	85	27.4
	Attending College or university	215	69.4
	Graduated College or university	8	2.6
	Graduate School or higher	2	0.6
Military rank	Private	35	11.3
	Private First Class	135	43.4
	Corporal	97	31.2
	Sergeant	44	14.1
age(year)		310	21.79
Military service eriod(month)		311	10.29

* Non-response has to handle missing values

4.2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군생활 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

4.2.1 주요변수 간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군 병사의 인터넷중독 수준은 대체로 가족기능과 군 생활적응에 부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또 일변량이 정상분포를 따르는지 확인하기 위해 왜도와 첨도를 살펴본 결과, 왜도의 절대값은 3보다 작고, 첨도는 절대값이 10보다 작아야 정규성에 위배되지 않는 데[72], 왜도는 절대값이 .252 - 2.30, 첨도는 절대값이 .276 - 6.20이므로 구조방정식 모형검증을 위한 정규분포성의 기본가정을 충족시킨다.

<Table 2> Correlation of main variables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Family Function	Adaptation to military life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1		
Family Function	-.321**	1	
Adaptation to military life	-.462**	.304**	1
Skewness	.252	-.429	-2.30
Kurtosis	-1.06	.276	6.20

*p<.05, **p<.01, ***p<.001

4.2.2 모형검증

군 병사의 인터넷중독, 가족기능, 군생활적응 간의 영향 관계를 살펴보기 전에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먼저 측정 변인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다음, AMOS 21.0을 사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잠재 변인과 측정변인 간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여 모형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모형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모형의 절대적합도 지수인 χ^2 값이 각각 48.790으로 나타났다고 유의확률은 p=.000으로 나타났으며, χ^2 값은 표본의 크기에 매우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특징이 있으므로 다른 적합도와 함께 고려하여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72].

다른 적합도 지수들을 평가한 결과, 표본의 크기에 영

향을 받지 않는 TLI와 CFI가 .938과 .962로 나타나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고, GFI가 .962로 좋은 적합도 기준인 .90보다 높으며, RMSEA는 .077로 나타나 적합한 적합도 기준인 .05~.08에 속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모형이 수용 가능함을 검증하였다(<Table 3> 참조).

<Table 3> Fit of Model

	χ^2 (p)	df	TLI	CFI	GFI	RMSEA
Model	48.790(.000)	17	.938	.962	.962	.077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Table 4>와 [Fig. 2]에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인터넷중독 → 가족기능($\beta = -.397$, CR=-5.748, p=.000), 가족기능 → 군생활적응($\beta = .189$, CR=1.987, p=.047), 인터넷중독 → 군생활적응($\beta = -.243$, CR=-2.352, p=.019)의 경로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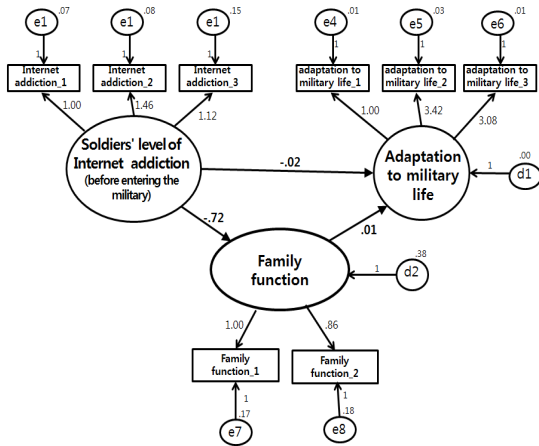
모형의 경로계수를 통해 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터넷중독은 가족기능에 부적(-) 영향을 미치고 가족기능은 다시 군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 인터넷중독은 직접적으로 군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는 군병사의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이 낮아지고, 또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적응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은 군 생활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으로 군병사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관계에서 가족기능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Path - coefficient of internet addiction influences on family function and military adaptation

Path	Estimate	SE	CR	P	
					B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 Family Function	-.702	.397	.125	-5.748	.000
Family Fun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009	.189	.005	1.987	.047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before entering the military)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022	-.243	.009	-2.352	.019

4.2.3 매개효과 검증

병사의 인터넷중독 수준이 가족기능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397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이 군 생활적응에 미치는 직접적 효과는 .189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을 매개로 한 간접효과는 -.075(-.397×.189)로 나타났다. 즉, 간접효과를 살펴본 결과, 군병사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은 군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기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 군생활적응에 영향을 주었다.



[Fig. 2] Structural Model

본 연구에서는 매개효과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 Bootstrapping 방법을 사용하였다. 검증결과, 군병사의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적응과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간접효과는 유의확률 $p = .014$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과 군생활적응의 관계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검증되었다(<Table 5> 참조).

<Table 5> Analysis of Mediation effect

Path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s	Total effect	Bootstrapping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 Family Function	-.397	-	-.397	
Family Fun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189	-	.189	
Soldiers' level of Internet addiction → Adaptation to military life	-.243	-.075	.319	$p = 0.014$ < $\alpha = 0.05$

이상의 결과를 볼 때, 군병사의 인터넷중독 수준은 직접적으로 군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한편 가족기능을 매개하여 군 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중독의 가족기능을 통한 간접효과가 나타나, 가족기능이 입대 전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 부적응의 관계를 부분 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군 병사들이 입대 전 경험한 인터넷중독 수준이 군 생활 부적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가족기능이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 부적응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현역 군인 31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중독 수준과 가족기능, 인터넷중독 수준과 군 생활적응 간에는 부적(-) 상관, 가족기능과 군 생활적응에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제시된 연구 모형도 수용 가능하였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인터넷중독 수준과 가족 요인간에 부적 상관성이 밝혀진 것과[10,50] 유사한 결과이다.

둘째, 구조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한 후 주요 변수들 간의 관계를 확인한 결과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가족기능에 부적(-)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기능은 군 생활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주어서 가족기능이 높을수록 군 생활 적응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중독은 직접적으로 군 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높을수록 군 생활에 적응력이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윤병권[8]과 한인영 등[17]의 연구에서처럼 입대 전 중독 경험 수준이 높을수록 통제력이 부족하여 병영 적응 수준이 낮음을 의미하며, 이시형 등의 연구[74]와 하연미 [54]의 연구에서처럼 비효율적 가족 의사소통과 인터넷중독의 상당한 부적 관계를 시사하고 있다.

셋째, 주요 변수들 간의 직접 및 간접 매개효과 검증 결과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은 군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가족기능이라는 매개변수를 통해서 군 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이는 선행연구인 Adams[75], Wong, Deman과 leung[76], Heider 등[77], 황선영[78], 최나영[79], 서혜석

과 김정은[80]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이처럼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으므로 보호요인으로서의 역할에 집중하여 연구와 개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 인터넷중독 예방에 가족의 참여와 개입의 중요성을 강조한 선행연구들과도 일맥상통하는 결과임을 알 수 있다[81].

본 연구의 이런 결과들은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물리적 장애를 받는 환경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인터넷중독이나 몰입 증상이 개선되기는 어려우며, 인터넷 단절로 인한 공백을 건전하고 다양한 치료적 대안활동으로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오혜영 등의[82] 연구 결과와도 유사하며, 행위중독의 영향력을 물리적 격리만으로는 감소시킬 수 없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에 따른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군에서는 스마트교육을 적극 도입하고 국방 분야에 성공적인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83],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 환경을 구비하고 적극 장려하는 과정에 병사들이 노출되기 전에 인터넷중독 스크리닝 검사를 전문화하고 그에 따르는 효과적 개입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

둘째, 인터넷중독과 군 생활적응과의 영향 관계 속에서 가족기능의 매개효과가 검증되었기 때문에 인터넷중독 문제가 있는 병사들의 가족기능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특히 이 병사들의 가족기능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 수집과 가족과의 의사소통 시도가 필요하며,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를 진행할 수 있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 예를 들면, 군상담 체계를 통한 상담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병사들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 수준이 가족기능과 군 생활적응에 직접 영향력을 끼친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인터넷중독 수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군 내부의 상담 및 치료 체계에 전문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본 연구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적 딜레마가[84] 해결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이다. 본 연구는 설문 조사가 가능한 군부대를 편의 표집 했기 때문에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문제가 있으며, 인터넷중독이 군생활 부적응에 영향을 주는 관계에 작용하는 많은 심리사회적인 요인들을 충분히 다루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군병사의 입대 전 인터넷중독의 영향력이 군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과정에 대한 종적 연구와 질적 연구가

수행되기를 바란다.

REFERENCES

- [1] C. S. Choi, J. S. Choe, C. H. Park, "An Analysis of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ity Type and Organizational Deviance: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Compulsory Public Service Personnel", *The Quarterly Journal of Defense Policy Studies*, Vol. 99, pp. 253-288, 2013.
- [2] National Statistical Office, *Survey Report on Cause of Death*, 2014.
- [3] H. U. An, B. S. Choi, N. H. Son, M. H. Lee, U. K. Seo, U. J. Lee, *Survey on Human Rights among Maladapted Soldiers*, National Institute of Human Rights, 2006.
- [4] N. A. Hyun, N. H. Sohn, M. H. Mun, E. K. Seo, "Military Adjustment among Korean Servicemen and its Relation to Human Rights Violation Experiences", *Th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8, No. 2, pp. 425-435, 2007.
- [5] S. O. Kim, "A Study on Stress of Enlisted ma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1991.
- [6] Y. J. Kim, "Research on Military Accidents: Analysis of Their Nature Analysis and Prevention Measures",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5.
- [7] J. E. Kim, "A Study on Stress Coping Model for Military Life Adaptation of Soldier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6, No. 2, pp. 5-38, 2013.
- [8] B. K. Yoon, "A Study on the Stress of Army Life and the Behavior of Maladjustment in Military Service", Graduate School of Wonkang University, 2008.
- [9] D. H. Um, "A Study on the Factors Affecting Adjustment of Soldiers in the Military Service." *The Graduate School of Duksung Women's University*, 2009.

- [10] N. S. Lee, "The Effects of the Soldier's Stress on Suicidal Ideation",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Pyeongtaek University, 2001.
- [11] D. S.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rmy Soldiers of Military Life Stress, Suicidal Ideation, Social Support and Adjustment to Military Lif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Counseling, Seoul Venture University, 2012.
- [12] S. J. Oh, "A Study on the Self-Actualization of Military Recruits and Adaptation in Military Life", Major in Social Welfare Depart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2001.
- [13] B. S. Jang, "Study of Current of Soldiers' Stress and Prevention Method", Department of Welfare Administr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Dongguk University, 2010.
- [14] H. R. Choi, S. h. Park, "Research of Risk and Protective Factor Influencing the Military Adjustment of Korean Soldier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10, No. 3, pp. 1743-1756, 2009.
- [15] J. S. Lee, "Research for Cognition of New Generation Common Soldiers' Life in Barracks, and Method of Improving it", Major in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Science Dongguk University, 2002.
- [16] Y. R. Cho, "A Predictive Model for Internet Addiction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Pusan National University, 2003.
- [17] I. Y. Han, S. J. Koo,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Weakness between the Soldiers Internet Addiction and Their Military Adjustment", The Korea Contents Society, Vol. 12, No. 7, pp. 314-322, 2011.
- [18] K. M. Lee,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 on Soldiers' Suicidal Thoughts: Exploring Mediating Effects of Self-Differentiation",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Kyung Hee University, 2014.
- [19] S. S. Koo, "A Study on Adjustment in Military Life of the New Generation Soldier",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Ewha Woman's University, 2004.
- [20] M. H. Nam, J. M. Kim, "The Influence of Internet Addiction on Health Behaviour, Sexual Behavior and Mental Health of College Stud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4, pp. 367-378, 2014.
- [21] J. S. Mok,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to Attachment, School Adjustment and Self-Control among Adolescents", Graduate School of Kyunnam University, 2004.
- [22] S. An, "A Study on the Addictive Usage of the Internet",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0.
- [23] D. G. Moon, S. B. Moon, "A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Vol. 32, No. 5, pp. 49-65, 2011.
- [24] M. R. Gottfred, T. Hirschi,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lif", Stanford University Press, 1990.
- [25] S. J. Sung, "Analysis of the Causal Relationships of the Factors Related to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Major in Educational Psychology & Counselling Department of Education, 2010.
- [26] J. N. Kim,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School Adjustment Scale for Middle School Students and High School Students",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Vol. 25, No. 3, pp. 497-517, 2013.
- [27] H. S. Park, Y. K. Kim, "Family Relations Juvenile Delinquency-Focused on Marital Relationship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ol. 32, pp. 113-135, 1997.
- [28] S. K. Yoo, H. W. Shim, "Psychological Protective Factors in Resilient Adolescents in Korea", Korean Educational Psychology Association, Vol. 16, No. 4, pp. 189-206, 2002.
- [29] H. S. Shin, "Protective Factors of Resilient Adolescents Despite Family Adversity: School Adjustment,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Problem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1, pp. 141-161, 2004.
- [30] J. G. Lee, "A study on the Effect of Adaptation to Military Life on Soldier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Social Welfare,

- Sungkyungkwan University, 2014.
- [31] H. C. Lee, "A Study of Difference in Impulsiveness, Coping Style and Sociability between Maladapted Soldier and General Private Soldier", Department of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2009.
- [32] H. R. Son, "A Study on how Stress Affects Soldiers of New Generations in Adjusting to the Military" Major in Business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Administrative sciences Yonsei University, 2001.
- [33] K. A. Kim, "A Study on Adjustment in Military life of some Soldiers: the Focus of Health Behaviors & Stress",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 Biotechnology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2006.
- [34] Y. J. Park, W. C. Jeong, "Study on the Military Maladaptation of Soldiers in home front unit", International Conference Paper of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pp. 481-487, 2007.
- [35] Y. J. Jung, "A Structural Analysis of Irrational Belief, Interpersonal Competence, and Ego-Resilience Influencing Soldiers' Military Adjustment With/Without Victims Experience of Family or School Violence", Dissertation for the Ph. D. in Education in the Graduate School of Sun Moon University, 2013.
- [36] E. S. Sin, Y. J. Kim, H. S. Kim, S. M. Bae,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Internet Addiction Diagnostic Scale for Soldiers", 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6.
- [37] Charlton, J. P, Danforth, I. D, "Distinguishing Addiction and High Engagement in the Context of Online Game Playing",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3, pp. 1531-1548, 2007.
- [38] H. Cho, M. Kwon, J. H. Choi, S. K. Lee, J. S. Choi, S. W. Choi, D. J. Kim,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ddiction scale based on the Internet Gaming Disorder criteria suggested in DSM-5", *Addictive Behaviors*, Vol. 39, No. 9, pp. 1361-1366, 2014.
- [39]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5th ed.)", Washington D.C.: Author. p. 795, 2013.
- [40] H. S. Yu, J. Hwang, "Study on Gaming Addiction, Prevalent Symptoms with the Nine Diagnostic Criteria of 'Internet Gaming Disorder' suggested in DSM-5, and its Interrelationship with Psychosocial Variables", *Journal of Communication Science*, Vol. 16, No. 1, pp. 153-182, 2016.
- [41] B. G. Kim, M. H. Kim, S. O. Kim, H. S. Kim, "A Study of the Development of Internet Game Addiction Scal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Korea Agency for Digital Opportunity and Promotion, 2006.
- [42] Defense White Paper,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2014.
- [43] Y. N. Lee, "The Relationship between Family Functioning and Health Locus of Control in an Urban Area",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2008.
- [44] K. H. Lee, Y. D. You, "Family Function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Adolescents According to Parents' Marital Status", *Family and culture*, Vol. 18, No. 2, pp. 115-138, 2006.
- [45] G. S. Yoo, H. S. Chung, "Young Adults' Perceptions of Meanings and Motivations of Parenthood",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ol. 20, No. 3, pp. 39-47, 2002.
- [46] J. A. Song, J. S. Jang, H. N. Lee, "The Mediating Effects of Resilience in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Military Adjustment of Soldier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7, No. 1, pp. 63-95, 2014.
- [47] S. B. Han,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ren's Self-Concepts and Family Systems. Graduate School of Yunse University, 1992.
- [48] D. H. Olson, H. I. McCubbin, H. Barnes, A. M. Larsen, Muxen., M., Wilson "Family Inventories", *Family Social Science*, University of Minnesota, St. Paul, MN, 1992.
- [49] J. H. Park, "Instrument Development of Clinical Rating Scale for Family Functioning Evaluation", Major in Counseling and Clinical Psychology Department of Educational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Seoul Women's University, 2013.

- [50] D. H. Ko, "The Effects of the Parent's Raising Attitude and the School Adjustment on the Adolescent Suicide Ideati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2008.
- [51] Y. K. Goo, "The Effects of Parent's Bringing-Up Attitude, Parent-child Communication, and Social Support on Smartphone Addiction of the Adolescent: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Self-Control",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The Graduate School of Hansei University, 2014.
- [52] Y. I. Lee, "The Effects of Object Relations with Par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of Konkuk University, 2013.
- [53] J. G. Kang, "The Effect of Father's Rearing Attitude On Enlisted Soldier's Adjustment to Military Lif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anyang University, 2008.
- [54] Y. M. Ha, "Influences of Adolescents' Perceived Communication with Mother, Peer Support and Impulsiveness on Their Internet-Related Delinquencies", Major in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2003.
- [55] K. R. Chung,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Internet Addiction Tendency and Psychological Family Environment, Anxiety, Depression",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d School Chung-Ang University, 2001.
- [56] K. A. Jung, B. W. Kim, "The Differences of the Ego-Resilience and Disagreement in Parents' Rearing Attitude according to the Levels of the Smartphone Addi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2, pp.299-308, 2015.
- [57] R. Kraut, M. Patterson, V. Lundmark, S. Kiesler, T. Mukoppadhyay, W. Scherlis,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Vol. 53, pp. 49-74, 1998.
- [58] J. H. Kim, K. S. Kim,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Function in the Relations between Family Function and Internet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Family and Culture, Vol. 15, No. 2, pp. 155-171, 2010.
- [59] S. Y. Park, S. N. Yang, "Factors associated with internet use time among adolescents : focused on convergent implication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9, pp.387-395, 2015.
- [60] G. H. Kim, "The Computer Using Pattern and Computer Addiction of Adolescents in Korea", Journal of student guidance, Vol. 28, pp. 41-62, 2001.
- [61] H. J. Jae, "The Impact of Parent's Rearing Attitudes on Internet Addiction among Adolescent : the Needs of Internet Use as Mediating Variabl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 5, No. 1, pp. 113-128, 2004.
- [62] Y. H. Park,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ternet use and the Interpersonal Relationships in the Case of Higher Level Pupils in a Primary School", Counselor Education Major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Yonsei University, 2002.
- [63] Y. J. Lee, "A Study of Exparent-Children Relation Influence on Internet Accessibility of Adolescent in Digital Period",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1.
- [64] Y. R. Yeom, "Factors Influencing Internet Addiction in High School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Graduate School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7.
- [65] K. S. Lee, "A Study of Effects of the Internet-Addiction to School Life Adjustment of Student", Major in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Kwandong University, 2008.
- [66] S. Y. Lee, "Study on the Relationship of Internet Addiction of Training Soldiers and of Adaptation to Barracks Life's", 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Social of Culture Hannam University, 2014.
- [67] G. S. Jang, "The Influence of the Types of Parent Communication on Children's Game Addiction-Mainly Focused on the Mediated Effect of Family Function." Korean Society for Computer Game, Vol. 27, No. 1, pp. 181-188, 2014.
- [68] D. H. Olson, "Circumflex Model of Marital and Family Systems: Assessing", Family Process, Vol.

- 25, pp. 337-351. 1986.
- [69] Lavee, Y., "Family Types and Family Adaptation to stress: Integrating The Circumplex Model of Family Systems and The Family Adjustment and Adaptation Response Model.", Doctoral Dissertation of University of Minnesota, pp. 13-17, 1985.
- [70] G. Y. Jeon, "The influence of Adolescent- Perceived Family Cohesion, Family Adaptability, and Family System Type on Adolescent Adjustment", Doctoral Dissertation of Kyungbook University, 1993.
- [71] National Defense Research Institute, Manual of Level on Military Adaption, 2013.
- [72] T. J. Seong, "Advanced Statistics by using SPSS and AMOS", Hakjisa, 2014.
- [73] S. H. Lee, Y. H. Lee, U. J. Kim, S. G. Oh, A Study on the Internet Addiction and Child Education, Samsung Mental Health Research Institute, 2000.
- [74] D. M. Adams, J. C. Overholser, K. L. Lehnert, "Perceived Family Functioning and Adolescent Suicidal Behavior",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ren and Adolescent Psychiatry, Vol. 33, No. 4, pp. 98-539, 1994.
- [76] I. N. Wong, A. F. De Man, P. W. L. Leung, "Perceived Child Rearing and Suicidal Ideation in Chines Adolescents", Social Behavior & Personality: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30, No. 1, pp. 19-25, 2002.
- [77] D. Heider, S. Bernert, H. Matschinger, M. C. Angermeyer, J. M. Hare, J. Alonso, "Parental Bonding and Suicidality in Adulthood", The Australian and New Zealand journal of psychiatry, Vol. 41, No. 1, pp. 66-73, 2007.
- [78] S. Y. Hwang, "Internet use, Family Function, Communication with Parents among Military Personnels Adolescents",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 [79] N. Y. Choi,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Internet Addiction for Adolescents", Doctoral Dissertation in Nurs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5.
- [80] H. S. Seo, J. U. Kim,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nd Latent Mean Analysis of Career Prospects Hope among Stress and Suicide Ideation, Family Functioning, for Soldiers", Korean Academy of Military Social Welfare, Vol. 8, No. 1, pp. 5-23, 2015.
- [81] Y. T. Jung, J. A. Oh, "The Study on Factors Affecting Committing Behavior School Violence According to the degree of Internet Addic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0, No. 1, pp. 77-86, 2012.
- [82] H. Y. Oh, Y. H. Lee, K. M. Kim, "Effect of Residential Treatment for Adolescents with Severe Internet Addiction", Asian Journal of Education, Vol. 12, No. 2, pp. 207-239, 2011.
- [83] C. K. Pyo, K. S. Han, G. S. Ryu, "Empirical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User Satisfaction of Military Smart-Educ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2, pp.41-48, 2016.
- [84] J. K. Kim, "A Study on Dilemma in Internet Addiction Prevention and Solution Policy for Adolescen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6, pp. 23-34, 2014.

양 정 남(Yang, Jeoung Nam)



- 1993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1997년 12월 : 영국 University of London 박사
- 2000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사회복지실천, 의료, 정신보건복지

· E-Mail : jnyang3697@hotmail.com

최 은 정(Choi, Eun Jeung)



- 1997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문학석사)
- 2014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박사
- 2005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정신보건사회복지, 중독 및 정신건강, 사례관리

· E-Mail : ejchoi3781@dsu.ac.kr

박 순 희(Park, Sun Hee)



- 2009년 2월 : 동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
- 2012년 3월 : 동신대학교 원격평생교육원 교수
- 2014년 3월 ~ 현재 : 동신대학교 교수
- 관심분야 : 다문화사회복지, 가족상담 및 복지, 사회복지실천

· E-Mail : sunny681127@hanmail.net

형 민(Hyung, Min)



- 2001년 2월 : 육군3사관학교 군사학 학사
- 2013년 2월 : 단국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 2015년 2월 ~ 현재 : 동신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재학 중
- 2016년 11월 ~ 현재 : 제 31보병사단 복무

· 관심분야 : 정신보건, 군사회복지, 교류분석

· E-Mail : airhmin@daum.net